



제목	Safavid Iran: Rebirth of a Persia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Tauris
발행일	2008. 12. 15.
저자	Andrew J. Newman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88
ISBN 또는 ISSN	978-1845118303

내용 요약

이 책은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이란의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사파비조의 성공과 변영에 대한 글이다. 저자는 사파비조가 이란의 이슬람 시대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시대가 된 배경을 탐구하였다. 사파비조는 정치, 복지, 과학, 철학, 종교, 예술, 건축에서 광범위한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이다. 이 책은 1501년 이스마일(Ismail) 왕이 타브리즈(Tabriz)를 점령하여 시아파가 국가적 신앙이 된 시점(1488~1524), 압바스(Abbas) 왕이 이스파한을 수도로 하여 예술과 건축을 후원하는 과정(1587~1629), 17세기와 18세기 초 후세인(Husayn) 치세에 국가 번영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점(1694~1722)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당대의 외국인 여행객이나 지방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을 참조하여 동시대인의 생동감 있는 시각이 녹아 있다.

이 책은 결혼 정책이나 부족 동맹, 이란과 외국, 특히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등 흥미로운 서술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아 역사적 발전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재탄생'이라는 부제와 달리 사파비조에 대한 명확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하거나 재평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1500~1750년까지 페르시아의 역사와 예술을 파악하는 개설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비전문가에게는 좋은 읽을거리인 셈이다.